

청소년 복음화 주간 운영한 예수사람운동

—중보기도, 사역자포럼, 교문 앞, 명동 노방전도—



청소년 선교단체 예수사람운동(대표 박상철 목사)은 9월 둘째주를 청소년 복음화 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갖는다. 예수사람운동은 청소년 복음화 주간을 기획한 동기를 청소년들에 대한 오랜 무관심과 성장하지 않는 교회교육과 소극적 투자에 의한 한국교회 중고등부의 쇠퇴로 지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회 중고등부 부흥과 중고등학교 복음화를 목적으로 복음화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은 청소년들을 위한 중보기도인(6의 날(담당:이성희)로, 화요일은 청소년 사역자를 위한 포럼(담당:탁익환)으로, 수요일은 각 중고등학교마다 교문 앞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교문찬양의 날(담당:김유신)로, 목요일은 기독교사들과 기독교학부

모와 기독교학생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모습들로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를 발표하고 서로 중보하는 "따로 또 같이"의 날(담당:함지혜), 금요일은 춘천 기독교 청소년 대표 100명이 명동으로 나와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 날(담당:양계희)로, 마지막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과 춘천의 모든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모임의 날"(담당:윤원락)로 마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교회 중고등부 교역자들의 청소년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변화되어 교회마다의 청소년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다짐했고,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자녀가 부모들의 민족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고백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에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양육시킬 것을 다짐했다. 학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학부들과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 기독교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좋은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선교단체가 함께 하는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학원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별히 이

번 행사를 통해서 춘천의 청소년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청소년 복음화 주간을 보내며...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찼었다.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양육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학생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할 때 막막하였으며,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으로 양육해 주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마침 "청소년 복음화 주간"이라는 좋은 행사가 있어서 계속 참가하게 되었다. 월요일의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이 있었다. 그간 많은 교회들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관심했고, 청소년들은 그냥 놔두어도 되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그 시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며 교회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는 것일 것이다.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소년들을 보았고, 자신의 옛모습을 회개하여 성령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는 청소년들을 보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았다. 이제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학부모들과 선교단체가 각자 어떤 것을 주며,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양육시킬지를 고민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김유신 가정교회교회 중고등부 교사 간담—



신문발행 4주년 감사



발행인 윤철중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춘천중앙성경교회 담임목사)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은 도청소재지라는 큰이름을 가졌으나 전국 주요도시 중 가장 작고 교회 또한 연약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속에 거자세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씨가 있기에 감히 도시 전체를 성시화(聖市化)하려는 신앙운동이 일어났고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국내외 수많은 도시에 성시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곳 춘천에서 성시화에 전력을 경주한 사역자들이 오도록 하지 않고 모든 도시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춘천성시화 사역이 체계화되고

힘을 얻게 된 것은 96년 9월 성시화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매주 목요일기도모임을 계속한 것이며 98년 9월 15일 성시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발전과 활성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열악한 불모지와 같은 형편에서 오직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4년동안 늘어난 거둬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신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일부교회, 선교단체, 성도님들의 회심 봉사적인 후원력의 힘이 컸습니다. 본지는 전국 최초의 성시신문으로써 우리 도시의 기독교 복음신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매월 1만원, 신자들이 1천원을 기도와 함께 지원하고, 기사 자료를 제공한다면 더욱 훌륭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끊임없이 도와주신 독자가 여러분과 교회,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본지에 좋은 글과 예언을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년간 쌓은 탐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동배 삼척성경교육정보관장
전 춘천중앙성경교회회장

춘천성시신문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무새처럼 듣기 좋은 말로 인사드립니다. 과연 제가 속하의 글을 쓸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음의 소리가 나를 비롯한 것입니다. 정말 겸연쩍습니다. 교회의 장로 직분을 맡은 자로, 직장선교협회의 임원이었으며, 더구나 춘천성시신문의 운영

위원이었던 것도, 그동안 얼마나 성시신문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쏟았나 되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문득, 4년의 긴 세월동안 그 어려운 성시신문을 위해서 기차, 편지, 주한, 발행, 재정 등을 어찌 어찌 이끌어 오셨고 그 초라해지신 두 분의 모습이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로 크게 크로잡 되어 떠오름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두 분이야 이 일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일 것입니다. 춘천지역에 터 잡고 뿌리내리고 자라기 시작한 4월처럼 춘천성시신문, 이제 춘천의 교회들과 성도들 모두 성시신문이라는 선교의 나무가 꽃피고 열매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보살피 주님의 터를 견고히 하여, 주님 오시는 날의 기쁜 소식을 신여 영원히 빛날 이 땅의 면류관이 되게 하십시오. 춘천성시신문은 춘천성시화의 초석입니다.

2002 장로교 주일연합예배

춘천지역 장로교회연합(회장 사공정 목사)은 지난 8월 25일 주일 오후 7시 30분 동부장로교회당에서 장로교 연합예배 춘천지역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1백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진정한 연합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문정집 목사(사우동교회)의 사회로 동부교회 인도장 장로기도, 온성교회 송문식 목사 성경봉독, 불내교회 김승권 목사 헌금기도, 민족통일과 나라안정, 장로교 연합 부흥, 춘천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대성 목사, 김진한 목사, 문종식 목사의 특별기도가 있었고 한빛교회 성가대의 찬양, 회장 사공정 목사 인사와 저용환 목사(온혜교회) 광고



에 이어 김광국 목사(성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동성교의 정경근 목사는 복된 삶이란 설교말씀을 통해 신본주의적인 삶을 강조했다. 성도들은 참회기도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용서를 구했으며 장로교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서진형목사: 홍준원 집사

동부연회 감독후보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성경교회 권오서 목사 감독후보로 단독 등록—



권오서 목사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오는 10월 29일 부터 31일 까지 3일간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25회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 행정사항을 논의의결한 후 전국 10개 연회의 감독을 선출한다. 전국총대 3,000명 중 목사 총대 1500명과 장로 및 어선교회 대표 총대 1500명으로 구성된 감리교회 총회는 2

년마다 감독을 선출하며 연회별로 감독후보가 등록하여 정책발표를 한 후 총회에서 제3회 3분의2이상 득표함으로써 감독이 된다. 동부연회는 춘천중앙교회 권오서 목사가 단독 등록하였음으로 강원도내 585교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가 되는 감독 선거는 총회 당일 투표를 생략하고 감독당선을 선포함으로써 제12대 동부연회 감독이 확실시 되었다. 동부연회 총회는 목사 119명 장로 97명과 어선교회 회장 22명 등 238명으로 확정되었고 오는 9월 30일 원주삼천교회와 10월 7일 주문진교회에서 정책발표를 한다.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인종 신학원으로써 성경중심의 개혁신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보수 정통신학을 지향하고 개(기)교회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돕는 교역자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향한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실천신학 중심의 실력과 영성으로 사명자를 훈련시켜 드립니다.

■ 본교특전

1. 각종 장학제도
성적우수 / 노후후원장학제도(전교생혜택) / 근로장학제도
2. 본교 신학원 졸업 후
총회신학 편입학 졸업 후(1년) 총회고시를 치러 목사안수 받음
3. 기숙사 시설 완비

◆ 강원신학원(개혁) 대학부: 전도사 후보생 과정

학 과	학 제	지 원 자 격
신학과	4년(6학기)	① 고졸 및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세례 후 1년 이상된 자로 소명이 확실한 자 ③ 편입생/대학 또는 1.2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인정된 자
신교학과		
여교역학과	3년(6학기)	① 중졸 및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세례 후 1년 이상된 자로 소명이 확실한 자 ③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철저하게 보좌할 자
성서학과	2년(4학기)	① 중졸로서 신학과에 입학할 원하는 자 ② 세례 후 1년 이상된 자로 소명이 확실한 자

※ 월·화·수·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합니다

신입생·편입생 모집요강(개혁신학원(개혁))

말씀이 살아있는 학교
영성이 살아있는 학교
실력이 살아있는 학교

◆ 강원신학원(개혁) 신학부: 목사 후보생 과정

학 과	학 제	지 원 자 격
신학연구과	2년(6학기)	①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교와 일반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연구과	2년(6학기)	①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교와 일반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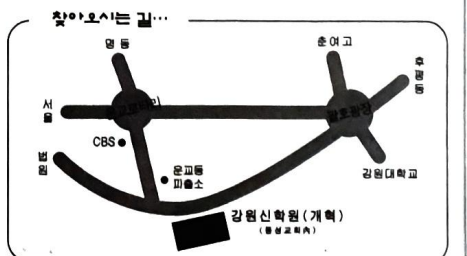
※ 월·화·수·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합니다 ※ 해사인수 필요설은 안문명필수 수 있습니다

◆ 강원신학원(개혁) 특별과정: 가정에서 통신으로 공부할(수시모집)

학 과	학 제	지 원 자 격
신학과	3년(6학기)	①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과 사명에 불타는 사람

※ 통신신학은 능력에 따라 기간이 1년 이상을 필요로 함. 본 신학원 특별 학원에 편입 가능함입니다

- ◆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원 소장장식(1통)/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주인등록증본(1통)/사진4매(3×4)
- ◆ 전형방법 면접 및 서류전형
- ◆ 진학상담 사명자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를 위하여 항상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강원신학원(개혁)

☎(033)252-4494 / 253-4494 / H.P.011-9057-7027 / FAX.253-4493
200-95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번지 동성교회(정호근 담임목사) 내

사설

성서화 운동은 헌신봉사를 주식으로 한다

봉사로 헌신을 전제로 하며 자발적인 회생을 영양분으로 성장한다. 순천 성서화 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젊은 신앙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성장해 왔다. 초기에는 지역교회의 배타적이고 방관적인 정서하에서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몇 사람의 꾸준한 회생적인 봉사로 92년 8월 모든 교회의 동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헌신적인 봉사는 그 종류와 분량이 수도없이 많지만 진실한 기도, 신앙고백에서 나온다. 따라서 진실한 기도가 없는 자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없다. 성도들의 회생적인 봉사는 받은 달란트, 돈으로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성도들의 회생적인 봉사는 성서화의 원동력이며 교회와 선교기관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복음을 위한 봉사는 제한적이거나 자기유익을 전제로 할 때 진실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봉사로써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다. 교회는 회생과 봉사를 단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기준처럼 사용하면서 실은 봉사의 범위를 교회로 한정시킴으로 봉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다. 성도들의 회생적인 봉사는 어떤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나 선교기관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봉사정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성서화 전략의 하나로 98년 9월 순천성시신문이 창간되고 4주년을 맞았다. 일부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이다. 현재 동참하는 봉사가자 미미한 실정에 있으나 신문을 위해 매월 천원 이상을 후원하는 성도가 몇백명으로 증가한다면 보다 나은 신문발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는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영적예배의 삶을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신자일 것이다. 한국교회의 일원인 백만 신자 중에 이러한 신앙인은 얼마나 있을 까. 성경은 의인 열사십이 없어 유향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성의 기사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갈 믿어 복음이 받은 교회와 개인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매주 매일 수시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불행에서 안전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 앞에서 면죄를 운운한다면 불경에 속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봄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먼지로 애통해한다. 그러나 황사보다 더한 대책 없는 부정부패의 먼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언제 먼지없는 맑은 양심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다려 진다.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사 청문회가 있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학총장과 언론사 대표자는 진한 먼지만 피우고 탈락되

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저구는 등등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갈릴데아를 거역하고 큰소리치자니 애통해 공중매진다. 국민 대다수는 청문회장에서 절뚝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사법부, 교육계, 재계,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먼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자정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 국민의 눈은 어떠한가를 묵상과 강로, 교회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면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겠다. 성자란 이름에 "도둑놈"이란 말이 붙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도둑놈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나지 않아야 하며 내가 거듭남을 통하여 흔탁한 우리 사회를 먼지나지 않는 청정사회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교회소식 · 교계단신

- ◆수재의연금 기부 감사 순천일신장로교회(이준주 담임목사)는 수재로 고통을 치한 강간도민을 위해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성시신문'에 첫 의연금 10만원을 기탁했다.
- ◆한국기독교 직장선교회협의회는 제1기 한국직장선교 목회자교육원을 열고 직장선교 목회자 및 지도자를 육성한다.
 - 교육일시: 2002년 9월 30일 ~ 2002년 12월 2일 (10주)
 - 교육장소: 서울교교회: 김호일목사 사무(TEL.02-755-4635)
 - 원서접수: TEL.026261-0691/HP.016-205-5091(직접접수 이메일: 이계용 목사)
- ◆서울이민교회와 신영이목사는 지난 9월 5일 동부연회 박성현 감독을 방문하여 영동지역 수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 ◆수강총회학교 석정기 담임목사는 15명의 성도와 9월 9일 초추천지수재지역 이재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수재의연금과 함께 일일봉사를 실시하였다.
- ◆순천중앙감리교회(연우서 담임목사)는 9월 5일, 9일 기독교방송·도민일보, 강연일 보사에 수재의연금 300만원과 도시락 900개, 생수 60사, 라면 20상자, 의류 및 이불 360점, 기타 200여점 등 물품을 기탁했고 강릉과 정선 수해현장에 교인 85명이 방문해 봉사했다.

(8월) 성서회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개인》 강성수 김철수 김기태 김영명 김현철 민병일 박동훈 박상훈 성경인 안미애 안정숙 엄철환 오홍수 유근창 이순은 이병연 이윤택 이영규 임은경 왕순옥 한순수 한희원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황병환 장기영 정찬희 조남진 조충환 최영용 최상호 최희광

《교회》 순복음순천교회(김주환목사) / 순천성서감리교회(임택창목사) / 순천중앙성경교회(윤철중목사) / 순천양문순복음교회(김길홍목사) / 순천연원교회(신성관목사) / 순천소양성경교회(이원호목사) / 순천시암성경교회(최상도목사) / 순천일신장로교회(이준주목사) / 순천제사사랑장로교회(정재호목사)

《단체》 순천직장선교연합회(박상훈 대표회장) 이영규(영광한의원) 조은제/기회(메드병원선교센터) 이관호/윤영순(알로메이민)

《후원회》 노협 203-02-280238 (예금주: 조남진) 조홍은 711-04-123620 (예금주: 조충환)

“값싼 은혜로 내 백성을 유혹하다니!” (미3:5)



변석규 장로
순천일신장로교회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복음(?)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한 채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 주려는 값싼 복음일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들켜 내려는 곳에서 세상의 위로와 평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값싼 복음을 계속적으로 찾아나서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자에게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는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으리라. “묵은 땅이

가짐” 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테니 말이다. 철저한 죄의 회개가 없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복음은 돌리는 뿔마리에 불과하다. “이 시대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제가는 단 한가지 사실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으로 구원 받아야 한다”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고백을 기억해 본다. 또 다른 독일 신학자 본 헤버는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의 시너로 타락되어져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원인을 “교회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헤버가 말한 “값싼 은혜”란 1)회개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

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하는 설교, 2)창된 신앙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에 집착하여 세례를 남발, 3)하나님과 거룩한 개인적 교제는 사라지고 다만 형식적 성만찬만을 강조하는 풍조, 4)순종없는 은혜와 십자가 없는 은혜, 5)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를 말한다. 값싼 은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값싼 은혜라는 짝은 부산물이 생겨나게 된다. 미가서 3장 5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값싼 은혜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불령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

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표준새번역) “하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기억해야 하리라. “그가 열릴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53: 5) “그렇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까닭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값싼 은혜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값을 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목숨을 거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자.

교회역사

강원도 기독교전래약사【略史】(15)

- 의료선교와 의료기관 -

개화초기 병원 개원현황

병원명	개원년대	개원인	위치	주요내용
장혜원	1885. 4. 23	알렌(드론)	서울	濟安院으로 개칭, 1904년에 브란스병원으로 개칭
정동제일병원	1886. 6. 15	스크랜튼	서울	德醫院으로 개칭, 고종황제가 이듬해 방문, 이현 상에서 진료소설치
동대문부민병원	1887. 10. 20	메러하드	서울	保民醫院으로 명칭, 황후가 이듬해 방문
평양기독교병원	1893. 4. 1	홍로제타	평양	平壤義人醫院으로 부름, 후일 廣惠醫院으로 개칭, 강원도 부민전문병원으로 개칭
개성남성병원	1907. 9. 7	위트만 리드	개성	백지리아독지가, 아이비기념병원으로 개칭
해주구세병원	1913. 10. 10	발로우	해주	발로우선교사여민기념교회로 세움, 놀른 기념병원
원주구세병원	1898. 5. 15	하리영	원주	후일 로스선교사가 건립
원주제이병원	1913. 11. 15	앤더슨	원주	미국거주, 스웨덴감리교회지원으로 건립



1913년 '서미감병원'으로 설립되어 의료선교의 메카로 활동하며 성장한 - 오늘의 '원주기독교병원' 전경 -

② 강원도에 설립된 병원과 선교교회 (宣敎效果)

개화기 이후 고종황제는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의학교(醫學校)를 세우고 주요 지방도시에서 서양의학을 전파하는 병원설립을 허락하였다. 진주 예수병원, 평양 기독교병원, 함흥 자혜병원 등 지방병원을 1909년에 설립하게 하였고 2차로 수원, 춘천 등 10개 지방에 민주는는 선교사를 통하여 “서미감병원”이 세워져 의료를 통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원주의 서미감병원(瑞美監醫院)의 설립자 앤더슨이 보낸 초기 의료사업과 선교내용을 보면 환자치료를 통한 선교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수송을 할때마다 자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환자들은 이웃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했습니다. 병장수술을 받은 한 사람은 친구를 내친후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원인이 되었다고 이들이 나가서 병원의 평판을 널리 알려줌으로 전파하는 병원설립을 허락하였다. 진주 예수병원, 평양 기독교병원, 함흥 자혜병원 등 지방병원을 1909년에 설립하게 하였고 2차로 수원, 춘천 등 10개 지방에 민주는는 선교사를 통하여 “서미감병원”이 세워져 의료를 통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원주의 서미감병원(瑞美監醫院)의 설립자 앤더슨이 보낸 초기 의료사업과 선교내용을 보면 환자치료를 통한 선교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수송을 할때마다 자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지만 그대로



1887년 '동대문부민병원'으로 설립되어 명성황후가 '보구여관(保球女館)'이라 이름을 지은 - 최초의 여성전문 병원 -

충청지역 직장 기독인 연합 선교대회 - 초청강사 김창배 목사, 에드림찬양단과 함께 -



충청지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박상운 장로)는 9월 8일(주일) 오후 7시 20분 소양성결교회(이원호 담임목사)에서 각 직장선교회와 가족, 본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신앙열기를 더했으며 직장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상운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고 민경복 수석부회장의 기도, 조경일 강원대학 선교회장의 헌금기도, 중앙감리교회 에드림찬양단의 경배와

이길호 조총련 맹 선교회장이 봉독한 본 문으로(딤후 6장 7절 12절) 초청강사 김창배 목사(서울신광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목사는 50년 설교를 통해서 직장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역설했다. [예 직장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돈벌이에 목욕을 두지 말고 복음전도자로서 살기를 바란다고 신곡을 켜기도 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찰서에 근무하는 집사님을 심방, 경찰서 문

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무개 집사님하고 큰소리로 불렀는데 머리를 아래로 숙인 채 하는 말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근무하라고 그러십니까' 반문했다. 얼마 후 다시 방문하여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사무실 입구에서 집사님을 불렀다고 한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국무총리서신 인사청문회에서 탈락된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존경받고 있는 대학총장, 언론사 대표였다.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돈은 일반인의 뿌리라고 했다. 돈 없으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담에 가치있는 삶을 살기 바란다. 기독교는 청년생활을 가르치려 여긴다. 공립고등학교를 나온 중학교 동창이 대학출입장을 그제 구했는데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아파트, 목욕탕 등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잘 살았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중간에 암으로 죽었다. 모태에서 나올 때 무엇인가 잡으려는 듯 열손가락을 꼭 쥐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손가락을 꼭 쥐고 간다. 큰일이 사후에 교회의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다. 얼마 후 자기만 담임선생이 교탁 아래 무릎 꿇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청년, 대학 선교대회 개최

장로교 통합측 강원교회 전도부 학원 선교위원회는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춘천동부교회에서 춘천지역 청년, 대학 선교대회를 열었으며 YWAM의 경배와 찬양, CCC 민경복 인도로 IVF 황병태 기도, JDM 차경진 헌금기도, 동부교회 Glory Voice 특송, 서울 삼일교회 전병

옥 목사 설교, 유영준 목사의 축도로 대회가 성료되었다.



사진촬영제공: 홍종원 집사

충청기독교연합 정선 수재민 도와

충청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창수 목사)는 9월 10일 정선군 수재지역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동연합회 회원교회들은 교회별로 필요한 생필품을 모아 오전 8시에 집결해 350

명의 성도와 수재지역을 방문, 봉사했다. 라면 200상자, 의류 15상자, 침구류 30여점의 위문품을 1차로 전달했으며 많은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위문과 함께 봉사를 실시했다.

성시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성시신문 창간 4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춘천에는 350여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각 교회나 선교단체들의 소식을 한데 모아 알려주는 소식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시신문"이 발행되면서 크고 작은 교회와 선교기관의 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성시신문은 춘천 성시회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왔으며 춘천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달에 한번, 각 직장선교회 배당되는 성시신문은 많은 직장선교회 회원들이 읽고 있으며 어려운 직장생활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모두 합심하여 춘천성시회에 동참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동안 성시신문은 춘천의 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시신문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각 교회마다 담당자를 두어 복음은 교회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다루며 지면도 8면으로 확대하여,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며 또 재정적인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조급했던 힘을 모은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시신문"을 편집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조총련 복심님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일본선교에 대한 방향



황병호 교수
강원대학교 입산공학과
춘천제일장로교회 집사

전호에서는 일본단기 선교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대적인 세계의 체제를 유지하는 천황제 중심의 지나친 국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로서 과거한 우경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이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일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경회할 때이다.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을 복음화 시키야 할 당위성이 있다. 즉, 일본민족의 94%가 한반도를 통해 건너간 우리 조상들의 후예이므로 선교해야하며, 귀화한 한국인 20만명, 재일한국인 75만명등 100여만명이 50여년 전에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과 이들이 복음화되어 결사적 과감히 벗어나 주안에서 신명나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일본을 복음화 시켜서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등의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한일합방등 근대사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적 갈등과 증오와 좌절의 역사가 있는 한?일 관계이기에 이런 역사적 갈등과 상처를 주안에서 마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하여 좋은 파트너로서 21C를 함께 열어나갈 때 한?일간의 부정적인 역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이 연합하여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아시아권과 나아가서 세계선교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고려하면서 일본선교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첫번째로 일본인 중심의 선교이다. 이 경우 일단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교회의 문화와 성도들, 젊은 집사들, 대학생들을 개종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백성을 복음화 하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 일본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재일한국인 대상에 대하여는 선교이다. 선교사의 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일 한국인 2,3세는 국적인 한국인이지만 사교방식이나 생활자세는 일본인이므로 지나치지 않다.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동포와 일본인들을 전도케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협력 선교사를 주로 활용하는 선교이다. 일본에 파견되는 주재원, 자비량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유학생, 연수생들의 선교이다. 이들은 약 15,000여명으로서 일본 교회에 소속되어 각종 훈련이나 제자 양육 프로그램 등을 도와줄 수 있다. 네번째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동남아시아 사람, 공산권 국가 사람들, 북한 사람들, 모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과 관광객들, 해외 유학생, 노동자들로 다양하다. 특히 노동자로서 동남아시아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므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일본인을 전도하면 세계 선교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교역자에게 있어서의 자국(自國)전도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섯번째는 일본목사들의 해외연수이다. 일본교회 성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목사의 수만해도 엄청나다. 그들은 한국의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전도목발 훈련 등을 배워간다. 특히 일본은 직접 전도보다 계기를 마련한 간접 전도가 불만하고 하여 훨씬 수월이 많은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학우, 2001). 문화센터(Culture center)전도, 커피집 전도, 이모집 전도, 전화 전도, 비디오 전도, 살롱축제(Shalom festival) 전도, 부부초청 전도, 간증 전도, 사진을 통한 전도, 아동 전도, 노인 전도, 운동회 전도, 드라마다 전도, 의료 전도, 음식집 전도 등이 독특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역적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실시되고 있다(유기남, 1992). 이상과 같은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의 관심과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을 향한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교회의 선교소리와 열정과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현재 교회와 함께 선교 단체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성시만평



이가을의 기도제목 2월
(수재민과 이영길 선교사를 위하여)

"믿는 짝" 찾으시는 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장 허재성 목사
(춘천성서교회 담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일터

CYM 코리아(주)
기독교기성전통문화정보회사

"믿는 가정에 믿는 짝"
강원영사상담소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내)

초빙합니다.

믿음이 신실하며 상담에 은사와 소명이 있는 성도님

- 상담간부 0명
- 커피매니저 00명

033-242-2121(대)
0303-4875-6851

당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뢰를 확인하세요

www.cymkoreo.com / E-mail:cym2002kr@hanmail